

국토정책 *Brief*

제 252 호
2009. 11. 16

외국의 과학기술산업도시 성공사례와 시사점 -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중심으로 -

권영섭(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조성된 지 2009년으로 40년이 되었는데, 20년 경과한 시점에서 프랑스 모델, 30년 경과한 시점에서는 세계적 모델로 평가받았음
 - 황무지에서 1,380여 개 첨단기업, 약 3만여 개 일자리(이 중 고급일자리가 약 1만 5천 개 이상) 창출과 국제적인 도시 형성으로 볼 때 성공적으로 평가함
- 계획적으로 단지나 도시를 개발하여 세계적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성공도 관점이나 시기에 따라서 달리 평가되는데,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스웨덴의 시스타,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와 더불어 성공적인 사례 중의 하나임
- 그 성공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주로 작용함
 - 30년 이상 내다본 해안과 바람직한 공간개발 철학(시너지효과 창출)이 출발점임
 - 기후, 교통통신의 요충지, 관광여건 등 고급인력이 선호하는 양호한 입지여건
 - 지방분권 및 분산정책, 인프라 개발 및 연구지원 등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계획과 제도적 지원
 - 다국적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유치와 더불어 이들로부터 창업기업이 파생·성장
 - 핵심 입주업종으로 선정한 정보기술산업의 급속한 성장 등 행운의 요소도 있음
- 테크노폴의 조성과 육성을 통하여 국토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 소피아 앙티폴리스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첫째, 특화분야(IT, BT)의 다기능(연구·생산·지원) 집적 유도가 필요함
 - 둘째,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셋째, 20, 30년간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함
 - 넷째, 해외와의 연계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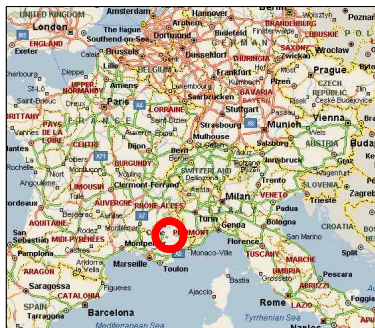
1 개발배경: 프랑스의 국토구조와 첨단신도시 개발 아이디어

- 프랑스의 국토구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지방 간 국토불균형이 심각
 - 1947년 그라비에(Gravier)는 「파리와 프랑스 사막(Paris et de Desert Francais)」을 집필하여 파리와 지방 간 불균형을 지적함
- 1960년 피에르 라피테(Pierre Laffitte)는 과학과 문화, 지혜의 신도시 개발을 제안
 - 르몽드(Le Monde)지에 발표한 “Latin Quarter in the Field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파리 센강 주변의 대학들과 대학 주변의 카페, 레스토랑, 서점들에서 발산되는 역동성을 재현한 첨단기술의 신도시” 건설을 주장함
- 1964년 알프스 마리타임 데파르트망 지방정부가 받아들여 단지개발에 착수
 - 기업, 대학, 연구소가 한 곳에 입지하여 상호 교류하면서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첨단산업이 집적된 계획적 테크노폴 개발을 시도함

2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개요

- 프랑스 제2공항인 니스 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위치
 - 니스(21.6km), 칸(15km), 그라스(16km), 앙티브(8km) 등 4개 도시의 중심(“Golden Rectangle”)에 입지함
 - 니스는 관광과 관련된 국제공항과 도로 네트워크, 온화한 기후 그리고 코스모폴리탄적 전통 등 고급인력이 선호하는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음
 - 니스 공항은 전 세계 30개국, 101개 도시에 51개 항공사가 취항하는 항공교통의 요충지임(2009년 현재)
- 도로는 파리, 암스테르담, 제네바, 로마 등과 통하는 48개 고속도로와 연결됨

[그림 1]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위치도



출처: 산업입지정보시스템(ILIS);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세계의 지역 혁신체계.

- TGV는 리옹(Lyon)까지 두 시간에 주파하나 프랑스 남부는 산악지형이므로 가장 빠른 편이 5시간 32분 소요
- 면적은 1단계 약 23km²(696만 평, 1972~1989), 2단계 약 22km²(665만 평, 2003~)으로 총 45km²(1,361만 평) 규모임

3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개발과정

>>> 1단계 준비기: 1960년대부터 1972년까지

- 1960년 피에르 라피테의 과학과 문화, 지혜의 신도시 건설 제안
- 1962년 IBM연구소와 텍사스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 TI)가 니스 인근에 입지
 - 1964년 발본느(Valbonne)지역에 1.2km²의 테크노폴 부지 지정
 - 1965년 니스대학 설립 등 라피테의 아이디어와 테크노폴 주변지역이 부상
- 1968년 도의회 의장이 유럽 최고의 과학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주장
- 1969년 DATAR가 프랑스 제6차 국토계획에 파리공과대학의 발본느지역 이전 내용을 포함
- 1972년 국가 부처 간 위원회가 소피아 앙티폴리스 개발계획안 승인

>>> 2단계 형성기: 1973년부터 1981년까지

- 라피테의 개발 프로젝트가 의욕적으로 추진된 단계로 생산보다는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물리적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임
 - 첨단기술산업, 연구소, 기업, 대학, 그리고 금융기관이 모여 있어 상호 개인적 접촉을 쉽게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의 창출, 창업 환경 조성
- 전반기인 1973년부터 1976년까지로 추진조직이 갖추어지고 단지는 준공되었으나 정책결정자들로부터 지지는 받지 못함
 - 1974년 프랑스 석유연구소(French Oil Institute)의 자회사인 FranLab이 최초로 입주
 - 1976년에는 파리 국립공과대학(ENSMP)과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실험실이 입주
 - 1974년 정부는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국가적 이익(National Interest)¹⁾ 사업으로 공표

1) 프랑스는 국가에서 개발사업을 지원하게 될 경우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여 적합할 경우 지원함

- 1975년 시미발(SYMIVAL)²⁾을 조직하고 사엠(SAEM)³⁾을 설립하여 추진체계를 갖추

- SAEM을 통한 국제마케팅 전략은 유럽시장에서 그 위치를 강화하려는 미국회사들의 의도와 일치하여 다국적 기업들이 속속 입지하였고, 누적적인 효과가 나타남

- 전반기에는 DATAR와 다른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인프라 건설로 인한 재정적 제약이 급속히 나타났음

- 후반기인 1977년에 들어서 에어프랑스 세계예약센터가 파리에서 이전해 와서 전 세계 여객 예약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노보텔(Novotel)도 개관

- 1977년에서 1981년 기간은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급격한 고용성장을 이룬 시기임
- 1982년까지 125개 기업이 입주하여 37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남

[그림 2]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전경



출처: 산업입지정보시스템(ILIS)

>>> 3단계 성장기: 1982년부터 1989년까지

- 1982년 미테랑 정부의 지방분권법 추진으로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입지한 알프스 마리타임 데파르트망도 일반 행정권한에 대한 자치권을 확보하여 급속한 성장의 계기 마련

- 1982~1989년간 투자가 7배 증가하였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분야의 고도 성장이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성공을 가져옴

- 경제주체, 민간과 공공, 구체적인 문화가 공유된 시스템 간의 일관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제도적 요소들이 형성됨

- 지방정부, 상공회의소, 은행, 서비스센터 등의 틀을 갖추고 기업 간 관계와 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소 간의 관계를 지원하고 촉진함

2) 시미발(Syndicat Mixte pour l'aménagement et l'Equipement du Plateau de Valbonne: SYMIVAL, 1997년 이후 SYMISA로 개칭)은 5개의 지방코뮌과 상공회의소가 연합(2002년 14개 코뮌으로 확대됨)하여 조직한 단지대표기구이자 니스-코트다쥐르(Nice-Cote d'Azur) 상업 및 산업성의 인프라 및 시설개발기구임

3)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설립한 반관반민회사임(semi-public company)

■ 테크노폴리스의 프랑스 모델로 성장

- 1989년까지 672개 기업, 1만 1256개의 일자리 창출, 제1단계의 개발과 입주 완료
- 개발 20년 만에 매스컴은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테크노폴리스의 프랑스 모델로 칭송

》》 4단계 성숙기: 1990년부터 2002년까지

■ 개발에 착수한 지 30년이 지난 1998년에는 세계 10대 지식기반 선도지역, 유럽 3대 지식기반 선도지역 중의 하나로 선정

- 뉴스위크지는 1998년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세계 10대 성장지역, 혁신지역 그리고 지식기반 선도지역이자 유럽 3대 성장지역, 혁신지역 그리고 지식기반 선도지역으로 선정
- 1999년에는 1164개 기업이 입주하고, 2만 53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5천여 명의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활동

》》 5단계 확장기: 2003년부터~

- 2003년부터 2단계 약 22km²(665만 평) 개발에 착수
- 40년이 된 2009년 현재 1380여 개 기업이 약 3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음

4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친환경적 단지 조성

■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총면적은 23km²로, 파리시의 1/4에 해당하는 규모

- 1단계 사업 23km² 중 개발제한구역과 공원·녹지의 면적은 총 15km²(65%), 연구개발 및 생산용지가 약 6.5km²(28.3%), 주거 및 여가공간이 약 1.5km²(6.5%)에 달함

■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살리고 높은 일조시간을 이용하여 태양열을 활용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건설

-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보존하도록 설계
- 건물이나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는 총면적의 10%를 유지하고 건축 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 지형보다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건물높이제한 12m, 4층 이내, 건물면적 입주면적의 33% 이내)

■ 최고의 근무환경을 위해 입주업체 간 격리 배치하고 환경을 저해하는 업종은 배제

- 정보기술산업, 생명공학산업, 에너지 및 환경 산업 등 첨단산업으로 업종을 제한함

- 단지 내 입주공장은 모두 무공해 산업으로 환경 침해 산업을 배제하며, 매년 기업 설문조사와 상담을 통하여 연구활동, 인적자원, 업종 등 입주기업의 주요 사항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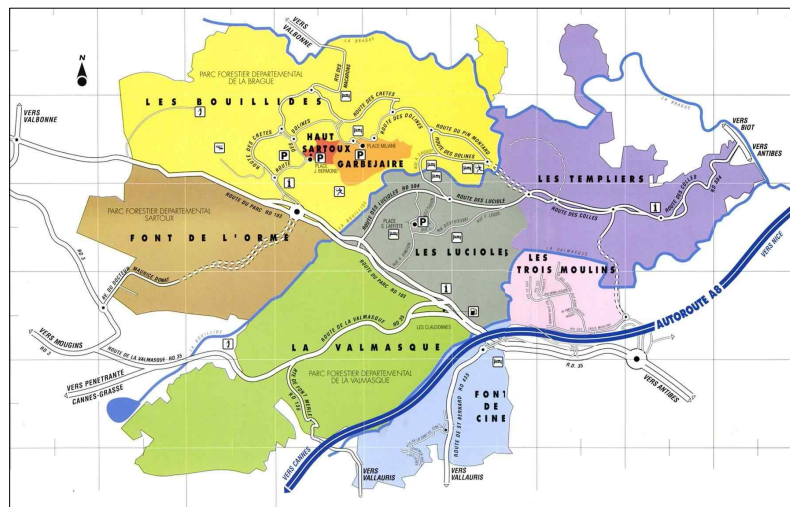
■ 고급인력이 선호하는 삶의 질이 높은 환경 조성

- 초기에는 인구 4만 명의 도시로 계획하여 리조트풍의 주택, 테니스코트, 풀, 골프코스, 쇼핑센터, 극장, 미술관, 호텔, 소규모의 국제회의장도 건설함
- 규모가 700만 평에 이르기 때문에 신도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내부에는 9홀의 골프코스 2개, 18홀의 골프코스 1개 등을 건설하여 고급인력들의 여가생활을 보장함

■ 주변지역과 교류 활발

- 약 3500세대,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70%는 단지 내 근무와 상관없는 외부인으로 구성(단지 내 인력들은 주로 니스, 앙티브, 칸, 그라스 등에 거주)
- 주변지역과의 유입·유출 등 상호 통근통학으로 외부와의 연계가 활발함

[그림 3]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토지이용계획도



5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혁신 클러스터 형성

>>>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산업 클러스터

- 정보통신기업인 컴팩(Compaq), IBM, 톰슨(Tomson) 등 선도기업을 유치한 후 가치사슬에 따라 그와 관련된 기업이 입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산업군집을 형성
 - 정보기술 분야는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입지한 기업들의 25%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5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임

- 정보기술 분야의 클러스터는 주요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 공공연구기관과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전문협회 네트워크 등 네 가지 주체가 주요 역할
 - 주요 다국적 기업은 알카텔 스페이스(Alcatel Space), 아마데우스(Amadeus), AT & T, 시스코, 컴팩, 프랑스 텔레콤, IBM, 루슨트 테크놀로지, 노텔 네트워크, TI 등이 있음
 - 중소기업과 고성장 창업기업으로는 액티비아 네트워크(Activia Networks), ARM, 유럽 테크놀로지(Europe Technologies), 지오 이미지(Geoimage), ISTAR 등이 있음
 - 전문 고등교육기관과 공공연구기관으로는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ESSI, ESINSA, 국립 컴퓨터 과학 및 통제연구소(INRIA), 국립건강의료연구소(INSERM), MBDS, 니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대학, 파리국립공과대학(ENSMP) 등이 입지함
 - 전문협회로는 AMI-C, 클럽 하이테크, 데이터베이스 포럼, ETSI, 스페이스 폴, 텔레콤 벨리 등이 있음

》》 생명공학(Biotechnology) 및 정밀화학 산업 클러스터

- 생명과학 및 정밀화학 산업(약학, 생명공학, 의학 등) 클러스터는 기업으로는 4%, 종사자로는 8%를 차지하는 작은 클러스터임
- 주요 다국적기업 및 첨단벤처기업들이 입지
 - 앨러건(Allergan), 아르코 파마(Arko-pharma), 아벤티스(Aventis), 다우 아그로사이언스(Dow Agrosiences), 하이 팜텍(Hi-Pharmtec) 등 세계적인 우수 기업들이 입지함
 - 첨단벤처기업으로는 아미티스(Amitis), 바이오나텍(Bionatec), 젠텍(Gentech) 등이 있음
- 전문 고등교육기관과 공공연구기관으로서 CNRS, INRA, INRIA, INSERM, 그리고 니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대학 등이 입지
- 전문협회로는 CARMA, 클럽 하이텍(Club Hi-Tech), 유러피안 허트 하우스(European Heart House), 퍼잔(Persan), 프로다롬(Prodarom) 등이 있음

》》 기술지원서비스 산업의 성장

- 정보기술 클러스터와 생명공학 클러스터에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많은 소규모 서비스 기업들이 이전, 창업 혹은 스핀 오프되어 높은 성장을 나타냄
 - 기업수는 전체기업들의 50%가 넘고 종사자수도 30%에 달함
 - 서비스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컨설팅, 건설, 마케팅 또는 유통 관련 기업들임

- 스핀 오프된 기업들은 주로 국립 컴퓨터 과학 및 통제연구소(INRIA)와 파리 국립공과대학(Ecole des Mines)이 모체이며,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모델링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 보유
 - INRIA와 Ecole des Mines에서 스핀 오프된 기업들은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데 성공함
- 창업 후 성장한 대표적 기업으로 평가받는 앵거슨 컨설팅(Angersen Consulting)은 10명의 작은 규모로 파크 내에 입지했으나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으로 성장(Longhi, 1999)
- 에너지 및 환경 분야는 프로젝트 초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피아 앙티폴리스 발전에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에너지 위기 문제로 중요성을 얻고 있음

>>> 해외와의 연계

-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개발 당시 다국적 기업들의 선도적 입지(연구소 분소, 지사 형태)로 개발에 탄력을 받음
 - 미국의 실리콘밸리, 루트 128, 영국의 캠브리지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 등에 기업 본사 및 연구소 등이 입지해 있었기 때문에 본사나 연구소와의 국제적 네트워킹이 활발
- 다국적 기업들의 선도적 입지로 단지 내 내생적 기업들 또한 국제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는 데 용이함

6

소피아 앙티폴리스 개발의 재원조달과 운영체제

>>> 재원조달

- 인프라 개발을 위하여 중앙정부, 데파르트망, 시미자(SYMISA,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입지한 9개 시⁴⁾의 연합. 2002년부터는 14개 코뮌으로 확대)가 재원을 분담
 - 소피아 앙티폴리스 건설은 지난 30년간 6억 유로화 이상이 투자된 만큼 국가와 지방당국의 지원 없이는 건설이 불가능한 거대한 사업임
 - 데파르트망이 2억 6천만 유로화를 투자하여 도로건설과 학술기관들(ESSI, ESINSA, IUT 등)을 설립함
 - 중앙정부도 2억 유로화를 투자하여 초기 토지구입에 기여함
 - SYMISA가 1억 7천만 유로화를 투자함

4) SYMISA는 Antibes, Biot, La Colle sur Loup, Mougins, Opio, Roquefort les Pins, Valbonne, Vallauris, Villeneuve-Loubet, Alpes-Maritimes 지방의회, Nice Cote d'Azur 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됨

>>> 토지소유 및 단지개발과 관리운영

- 단지개발 및 토지소유는 공공기관인 SYMISA가 맡고, 기업이나 기관에 분양해줌
 - SYMISA는 단지 내 모든 부지를 소유하고 개발하는데 개발비용은 대부분 토지매각대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부담은 적은 편임
 - SYMISA는 General Council 대표가 의장이고 44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위원들은 22개 General Councillors, 18개 코뮌 대표와 4명의 CCI 대표가 맡고 있음
- 기업들은 분양이나 임대를 통해 단지에 입주
 - 입주신청기관 및 기업체에 따라 600~3만 평까지 다양하게 분양함
 - 부지를 구입하여 직접 건축하거나 건축된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이 있으며, 입주기업의 80% 정도는 임대하여 입주함
 - 모든 입주기업이나 기관은 SYMISA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쳐 입주가 가능하며, 승인기준으로는 기술, 무공해 그리고 고용창출효과 등임
 - 단지 내의 모든 건물은 건폐율(평균 30%), 고도제한(단지 내 정상지역을 넘지 못함), 건축형태 등 개발원칙에 의해 엄격히 규제됨
- 단지관리(Marketing + Service)는 SAEM SACA⁵⁾가 맡고, 지방정부와 상공회의소 등 참여주체들의 협력하에 운영, 기업들은 SAEM을 통해서 단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
 - SAEM은 총 12명으로 General Manager가 2명, 건축 및 도시계획 담당이 3명, 토목 담당이 3명, 법률 담당이 3명, 마케팅 담당이 1명임
- 창업보육은 CICA가 위탁경영하며, 여기에서는 기본설비를 제공, 23개월 후 졸업

>>> 입주기업 지원과 서비스

- 개발 이후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는 EU, 프랑스 중앙정부, 코트다쥐르 레지옹, 알프스 마리타임 데파르트망, 그리고 9개 코뮌(2002년 이후 14개 코뮌으로 확대)에서 다양한 재정적 지원
 - 입주기업에게는 EU에서 연구개발프로젝트, DATAR에서 이전지원 및 지역계획보조금 지원, LANVAR에서 혁신프로젝트나 기술이전 지원, 레지옹의 보조금 지원, 데파르트망과 코뮌의 법인세 지원 등

5) Area Council과 상공회의소가 각각 51%, 49%씩 출자하여 구성함

- 광통신망과 고급 통신연구 시설 사용권, SAEM과 관련 지방정부, 상공회의소, 소피아 앙티폴리스 재단 등으로부터 각종 대행서비스와 정보가 제공됨
- 소피아 앙티폴리스에는 많은 교류 모임이 조직되어 있으며, 기업가, 과학자 등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음

【표】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EU		• 다양한 기술·과학 분야에서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틀을 확립하는 프로젝트에 지원
프랑스	DATAR	• PAT 지역계획보조금: 5년 내 최소 10~2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 프로젝트에 FF 70,000 지원 • 이전 지원: 3년 내 최소 20인 기업이 파리지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인당 FF 80,000 지원
	LANVAR (국가연구개발촉진기구)의 지원	•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지원 • 기술이전 지원
	레지옹	• 보조금이나 대부(기업의 업종변경, 기업과 혁신개발에 지원, 수출지원, 산업장비에 지원, 다양한 경제지원)
	데파르트망	• 데파르트망에 내는 법인세 5년 50% 감면
	코뮌(시)	• 3만 프랑 이상의 투자와 최소 10명 이상의 고용창출 시 법인세 5년 50% 감면(발본느시) • 지역진흥세 면제

7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고용 및 지역발전 효과

>>>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고용창출과 성공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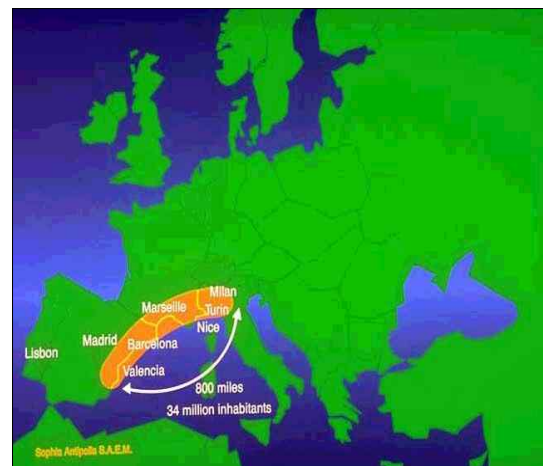
-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이언스 파크이며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
 - 전체면적의 2/3는 녹지공간이며, 1380여 개 기업, 약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150여 개의 외국소유기업 입지, 5천여 명의 연구자들이 활동
 - 소피아 앙티폴리스에만 다국적 기업, 국제학교 등으로 인해 70여 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는 국제화된 도시 형성
- 전체 일자리 중 53%에 고급인력이 집중된 신도시로 개발됨
 - 정보기술, 지구과학 및 교육, 훈련 및 연구 일자리 중 약 70%, 생명과학 일자리 중 약 40%, 상업 및 유통 일자리, 서비스 및 생산 일자리 중 25%에 고급인력이 종사

- 연구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으며,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등 기술집약적인 업종에 집중됨
 - 1380여 개 기업의 40%는 정보기술, 생명과학, 환경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부문에서 활동
 - 이 기업들은 70여 개국의 국적을 가진 1만 4천여 명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을 고용
- 개발에 착수한 지 30년이 지난 1998년에는 세계 10대 지식기반 선도지역 중의 하나, 유럽 3대 지식기반 선도지역 중의 하나로 선정됨
 - 산업과 연구소 및 대학의 전통이 없는 지적 자원이 황무지인 지역에서 시작

>>> 개발의 파급효과

- 거점개발에서 테크노벨트로 발전
 - 1980년대에는 공급기업과 하청기업이 알프스 마리타임 데파르트망 내 10%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말에는 40% 수준으로 증가하여 알프스 마리타임 경제로 확산
- 유럽의 중소도시 기술발전축(세컨드 바나나축) 형성에 기여
 - 스페인의 발렌시아에서 이탈리아의 튜린에 이르는 선형 선벨트, 세컨드 바나나축⁶⁾ 형성

[그림 4] 유럽의 중소도시 기술발전축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세계의 지역혁신 체계.

8 소피아 안티폴리스의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 초기 기업을 유인할 수 있었던 지역의 다양한 장점이 하나의 성공요인으로 작용함
 - 첫째, 고급인력이 선호하는 세계 최고의 휴양지역이며 도시적 문화생활(니스, 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도시의 중심에 위치)을 향유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었음
 - 둘째, 51개 항공사가 30개 국가의 101개 도시와 연결해주는 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으며, 전기통신 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디지털 네트워크(Digital Network), 프랑스 텔레콤(France Telecom) 등이 입주하여 세계 각지와 연결해주는 교통·통신의 요충지

6) 퍼스트 바나나(first banana)는 런던에서 브뤼셀을 거쳐 밀라노에 이르는 대도시축인 반면, 세컨드 바나나(second banana)는 스페인의 발렌시아에서 이탈리아의 튜린에 이르는 기술 중심의 중소도시축을 일컫음

- 셋째, 프랑스의 국립연구소, 민간연구소뿐 아니라 첨단제품생산시설도 동시에 유치하여, 우수 연구인력도 쉽게 확보 가능함
 - 넷째, 첨단기술 분야, 특히 중요한 각종 민간·공공단체를 설립하여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발한 교류활동을 가능케 했음
 - 다섯째, 다국적 문화가 교류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추었음
- 계획적으로 개발한 테크노폴리스에서 제도적 지원은 성공에 중요한 요인임
- 첫째, 알프스 마리타임 지방정부와 소피아 앙티폴리스 주변 5개 코뮌 및 상공회의소가 연합하여 만든 SYMIVAL(2002년 SYMISA로 개칭)의 활발한 활동
 - 둘째, DATAR의 중앙과 지방차원에서의 지원 및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발한 국제마케팅 전략 추진활동(SAEM)
 - 셋째, 지방분권법 추진으로 국가연구센터, 국영기업, 다국적기업, 고급인력이 이전
- 시너지 효과 또한 산업의 역동성과 더불어 소피아 앙티폴리스 발전에 기여함
- 시너지 효과란 첨단산업발전에서 간과할 수 없는 내생적 요인으로 새로운 자원을 창출해 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산업의 역동성
 - 시너지 효과는 성장속도가 빠르고 암묵적 지식의 교류가 혁신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식의 확산속도가 빠른 정보기술산업과도 관련이 깊음
- 테크노폴의 조성과 육성을 통하여 국토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 소피아 앙티폴리스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첫째, 단일기능(생산기능 또는 연구기능) 집적지가 아니라 특화분야의 다기능 집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셋째, 20, 30년간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함
 - 넷째, 해외와의 연계가 필요함
 - 다섯째, 고급 두뇌가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와 높은 삶의 질 공간 창출이 필요함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권영섭 연구위원 (yskwon@krihs.re.kr, 031-380-0165)